로컬푸드 직매장, 위기의 농가소득 대안 부상

1~5월 광주·전남 19곳 월 평균 매출 3억 4000만원…지난해 비해 28% 증가

농산물 매출 80% 농가에 환원하고 하루 500여명 찾아 직거래 새 길 열어

광주·전남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들이 연 평균 매출 30억원을 기록하며 농가의 새로운 판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산물 매출의 80% 이상을 농가에 환원하고 하루 500명이 방문하는 등 소비자와 농업인 간 유통 거리를 좁히고 있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1~5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지원을 받은 광주·전남 19개 로컬푸드 직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3억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월 평균 매출 2억6500만원보다 28.4%(75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1~5월 19개 매장이 거둔 매출액은 322억 9900만원으로 지난 한 해 매출액의 53.5% 수준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매장당 평균 매출은 1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장별 매출액은 여수농협 1호점이 51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장성 남면농협(50억900만), 도곡(30억2500만), 여천(27억100만), 수북농협(23억9300만), 순천 로컬푸드직매장 조례호수공원점(22억100만), 일로농협(20억5700만), 광양원예농협(19억4300만), 순천 로컬푸드직매장 순천만국가정원점(16억4100만), 화순농협(13억1200만) 등 순이었다.

광주·전남지역 국고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의 평균 매출은 지난 2016년 21억3900만원에서 23억8400만원(2017년), 31억7300만원(2018년), 31억7800만원(2019년)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평균 매출은 3년 전보다 48.6%(10억3900만원) 올랐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장세는 나주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한 '혁신도시 생활SOC 복합화 시설' 건립을 위해 최근 추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 자료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은 혁신도시 조성 초기였던 지난 2015년 1일 평균 방문객 수는 201명이었지만 지난해는 533명으로 2.7배(165.2%) 뛰었다.

연간 방문객은 2015년 8661명(영업 일수 43일)→2015년 10만8261명(〃362일)→2017년 15만881명(〃358일)→2018년 17만8309명(〃354일)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총 방문객은 19만3325명(영업일 수 363일)로, 20만명에 육박했다.

순천시 로컬푸드직매장의 경우 '직거래 1일 유통망'을 구축해 직매장 매출액의 88%를 농가에 환원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문을 연 순천만국가정원점 1호점에 이어서 조례호수공원점 2호점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로컬푸드 2호점은 2018년 임시개장 기간 동안 6300여 명이 매장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매출은 2500만원에 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70.43 (-1.36)
↑	코스닥	944.04 (+4.39)
↑	금리 (국고채 3년)	0.999 (+0.010)
↓	환율 (USD)	1093.30 (-0.70)

코로나 여파 홈 헬스케어 제품 인기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을 찾은 고객이 1층에 마련된 '홈 헬스케어' 체험형 매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이용해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소비자를 겨냥한 이 매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운영된다. 〈롯데쇼핑 제공〉

광주은행 범죄 피해자 지원금 광주은행 송종욱(오른쪽) 은행장은 지난 16일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을 찾아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자동차 편중 광주 제조업, 소재부품산업 육성해야"

한은 광주전남본부 지역경제 포럼

광주지역 제조업은 자동차 관련 산업에 편중돼 다른 지역에 비해 소재·부품 조달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완성차 및 부품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광주형 일자리 고용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16일 서구 치평동 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지역경제 포럼'에 담겼다. 이날 포럼은 '광주전남지역 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장희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광주전남지역 산업의 경쟁력 평가 및 발전 방안'을, 김운섭 광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이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 현황과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지정 토론에는 나주몽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재일 전남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 한상교 한은 광주전남본부 기획조사부장이 참여했다.

김운섭 단장은 발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한 지역산업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수출 규제 및 무역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스타트업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다양한 민간펀드를 조성하여 사업여건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 5924만원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1.7% 증가

지난해 가구 평균소득 증가율은 1.7%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가구의 평균소득은 5924만원으로,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은 3791만원으로 0.3% 늘었으나, 사업소득은 1151만원으로 2.2% 감소했다. 공적이전소득은 45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3%나 증가해 통계 작성 후 최대 폭으로 늘었다.

근로소득 비중은 64.0%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줄었고, 사업소득 비중은 19.4%로 0.8%포인트 감소했다.

가구소득을 분포별로 보면 1000만~3000만원 미만 구간에 24.7%로 가장 많이 몰려 있었다. 그 다음이 3000만~5000만원 미만(20.9%)이었다.

지난해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1106만원으로 0.7% 늘었다. 공적연금·사회보험료(353만원)가 4.3%나 증가했고, 이자비용(195만원)과 세금(357만원)은 각각 0.8%, 0.7% 늘었다.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4818만원으로 1.9% 늘어났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81.5%였다. 예상 은퇴연령은 68.1세이지만, 올해 3월말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18.5%)의 실제 은퇴 연령은 63.0세로 훨씬 빨랐다.

노후 준비가 잘된 가구는 8.2%에 불과했고,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는 38.9%, 전혀 준비가 안 된 가구는 15.9%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업 절반 "코로나 장기화로 내년 고용계획 세울 수 없다"

기업 절반 이상(50.4%)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내년 고용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정보포털 사람인이 최근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1.6%)이 "올해 기존과 비교해 대내외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비대면 근무 확산 등 근무방식을 변화한 기업은 32%였다. 대기업의 경우 53.6%가 근무방식을 변화했다고 밝혔으며, 중소기업은 25.5%였다.

변화를 시도한 부분은 '재택근무 도입 및 확대'(75.6%·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시차출퇴근제'(39.7%), '원격근무 시스템 도입'(15.4%), '자율출퇴근제'(15.4%) 등이 있었다.

"퇴직자 및 이직자가 많이 줄었다"는 답변율은 20.1%로 나타났다. '더 늘었다'는 18%, '변화없다'는 기업은 61.9%였다. 인력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은 진행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68.4%로 가장 많았으나, '구조조정은 아니나 인력 재배치 진행'(25.4%),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예정'(6.1%)인 응답도 있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해남군·보성군·광주교육청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 선정

올해 광주·전남지역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에 해남군과 보성군, 광주시교육청이 선정됐다.

광주지방조달청은 17일 '2020년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해남군에 상패와 표창장을 전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은 조달청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중 조달사업 이용실적과 전년대비 실적 신장률, 나라장터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선정된다.

올해 우수기관에는 해남군과 보성군, 광주시교육청이 뽑혔다.

광주조달청은 해남군 재무과 고형민 주무관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전달했다.

백호성 광주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이 구매예산을 투명하게 잘 쓰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지역과 공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